



전남 전국체전 D-30

-광주·전남 전력 분석

광주 수영·체조 목표 달성 전인차 전남 개최지 이점 살려 3위 노린다

올 한해 국내 스포츠를 결산하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0월 10일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체전에는 전국 16개 시도와 해외동포 선수단등 2만 4천여명이 참가, 7일간의 열전을 벌인다. 전국체전 개막 D-30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 선수단의 전력을 분석한다.

육상 김덕현(광주시청) 세단뛰기 7연패 도전

서틀극 '윙크스타' 이용대 '금빛 스매싱' 기대

◇광주=42개 종목 중 카누와 수영, 세팍타크로등 3개 종목을 제외한 39개 종목에 1천274(선수 946명, 임원 328명) 명의 선수단을 파견, 종합점수 3만 여점을 따내 종합순위 1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개최지 이점으로 종합3위를 달성한 광주는 지난 2006년 14위(2만 9천여점)에서 한 단계 상승한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개최지 이점이라는 플러스 요인이 있었지만 종합3위는 어렵다는 주변의 예상을 깨고 종합3위의 쾌거를 달성했으나 역시 광주의 전력은 한 자릿수 지키기에도 벅하다. 취약한 실업팀 부재가 항상 발목을 잡았으며 도미노 현상으로 우수 선수들이 실업팀이 있는 타·시도로 이적, 광주의 성적 상승에 찬물을 끼얹었다. 하지만 광주는 지난해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강세인 체조(광주체고)와 지난해 여자불링 종합우승의

패거를 이룬 불링, 광주여대의 양궁, 수영(HI 코리아)에서 다관왕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단체종목에서는 광주제일고의 야구, 전국 최강의 전력인 정구(동신고와 동신여고), 도시공사의 근대5종이 역시 금메달을 보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사상 고등부, 대학부, 실업부에서 모두 우승하며 전부 후무한 기록을 세운 검도가 올해 또 다른 기록도전에 나선다. 이외에 승마 최준상(삼성전자 승마단)이 마장마술, 수영 자유형 200m의 황준호(베네수엘라)가, 여자 일반부 수영 평영·점영 50m에서 김고은·김달은(HI코리아)자매가 금을 예약하고 있다. 육상에서는 세단뛰기에 김덕현(광주시청)이 7연패에 도전하고, 멀리뛰기에서도 4연패에 도전한다. 110m 허들의 박태경(광주시청)도 3연패에 도전장을 낸다. ◇전남=개최지 전남의 종합 3위 목표는 경북과 싸움에 달려있다. 전남은

42개 종목에 1천779명(임원 445명, 선수 1천334명)의 선수단을 파견, 개최지 이점을 최대한 살려 5만3천~5만5천점을 획득해 경북을 제치고 3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전남체전을 통해 전남 체육의 기틀을 다지고 200만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전남도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에 남은 30일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은 선수들의 선전과 개최지 인센티브 9천점과 상무, 경찰 육군단이 4천점을 더하고, 우수선수와 사·군 취업선수, 직장팀 획득점수 4천점을 더하면 충분히 종합3위를 달성할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특히 육상 남자 일반의 박주영(한국전력)이 마라톤 금, '금빛 윙크스타' 이용대(삼성전기)가 고향을 위해 배드민턴 복식에서 역시 금메달을 따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구에서는 남고부 남자일반이 모두 복식에서 금을 예약했고, 전통의 강세종목 메슬링 남고부 장재하·최일성(이상 광명필드)과 남자일반 김효섭(삼성생명)이 역시 금메달을 목에 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세계선수권에서 개인전등을 석권한 불링 최복음(광양시청)은 2인조와 5인조에서 2관왕, 사이클 나야름(전남미용고)은 3관왕에 도전하고, 역시 올림픽에서 기대했던 메달을 따내지 못했지만 체조 김대은·김승일(이상 전남도청)이 개인종합과 종목에서 다관왕에 도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9일 무안 목포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다이소배 전국실업핸드볼대회' 여자부 결승 경남개발공사와 벽산건설의 경기에서 벽산건설 김은아(가운데)가 슈트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대표 5명' 벽산건설 우승

전국실업핸드볼 여자부

국가대표가 5명이나 포진한 여자핸드볼 최강 벽산건설이 경남개발공사를 물리치고 '2008 다이소배 전국실업핸드볼대회' 정상에 올랐다. 임영철 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벽산건설은 9일 오후 무안 목포대 체육관에서 펼쳐진 대회 마지막 여자부 결승전에서 7골씩을 몰아친 문필화(11골)와 버턴 경남개발공사를 31-26, 5점 차로 꺾었다. 효명건설 시절이던 지난해 이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벽산건설은 이로써 대회 2연패를 이뤘다. 벽산건설은 또 지난 3월 강원 홍천에서 열린 전국실업대회 우승에 이어 올해 2관왕에 오르며 여자 실업 최강임을 입증했다. 골키퍼 오영란을 비롯해 센터백 김은아, 레프트백 문필화, 레프트윙 김남선, 라이트윙 박정희까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값진 동메달을 따낸 주역이 대거 버턴 벽산건설이 예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거뒀다. 승부는 전반에 일찌감치 결정됐다. 벽산건설은 1-1 동점인 전반 3분부터 박정희의 속공과 김은아의 돌파 슈팅, 최효진의 속공이 연달아 자결하며 4-1로 훌쩍 앞서갔다. 한편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던 국내로 돌아와 이번 대회에서 첫 선을 보인 '장신 거포' 윤경신(부산)은 33골로 남자부 득점왕에 올랐다. 여자부 득점왕은 39골의 정지희(경남개발공사)가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매서운 '秋風'

추신수 5경기 연속 2안타...타율 0.303



메이저리그 좌타자 추신수(26·클리블랜드·사진)가 좌투수를 상대로도 불방망이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추신수는 9일(한국시간) 캔턴아츠 오리올파크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방탄 경기에서 우익수 겸 6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 4타수 2안타, 2득점 활약을 보였다. 5경기 연속 2안타 이상을 때리는 물오른 타격감으로 시즌 타율은 0.303(중전 0.300)로 올라갔다. 추신수는 2회 초 1사 주자 없는 가운데 들어선 첫 타석에서 상대 좌완 선발 개럿 윌슨의 공을 밀어쳐 2루타를 치고 나간 데 이어 후속 아스트루발 카브레라의 2루타 때 홈을 밟아 득점을 올렸다. 4회 두 번째 타석에선 우전 안타를 치고 나간 뒤 카브레라의 우전 적시타 때 홈을 밟아 득점을 추가했다. 추신수는 6회엔 삼진, 8회 마지막 타석에선 내야 땅볼로 각각 물러났다. 경기는 클리블랜드가 추신수의 2득점 활약으로 3-2로 앞서가다 6회 말 7집점하며 무너진 끝에 3-14 역전패를 당했다. /연합뉴스

아시안컵 여자배구대표 확정

대한배구협회는 오는 10월 열리는 제1회 아시안컵 여자배구대회(AVC컵)에 참가할 국가대표 명단을 확정, 9일 발표했다. 여자대표배구 GS칼텍스 이성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세터 이숙자와 리베로 남지연을 필두로 GS칼텍스에서 8명이 발탁됐고 흥국생명과 현대건설, KT&G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각각 1명씩 뽑혔다. 대회는 10월1일부터 7일까지 태국 나콘 라차시마에서 열린다.

Table with 2 columns: Team/Player and Points/Status. Includes names like 김덕현, 김효섭, 최준상, 김고은, 김달은, 최복음, 나야름, 윤경신, 정지희.

Table with 2 columns: Team/Player and Points/Status. Includes names like 김효섭, 최준상, 김고은, 김달은, 최복음, 나야름, 윤경신, 정지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woo Real Estate (대우부동산) featuring a large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price, and featur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angmu Real Estate (상무랜드공인중개사)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imbobu Real Estate (금보부동산컨설팅) offer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apdong Real Estate (합동공인중개사) featuring apartment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